

당신의 안전은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은 국민이 안전 과민증에 시달리고 있다.

언제부터가 지루하리만큼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척도로 여겨지고 있다.

그만큼 사건사고가 많은 현대에서 안전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삶의 질과 직결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예방 중심의 안전교육이 중요한 이유다.

글·사진 김효정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경기도 오산에는 국민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이 있다. 낮은 언덕에 자리 잡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앞에는 바람개비가 봄바람에 장단을 맞춰 신나게 돌아가고 있다. 그 뒤로 경기도소방재난본부 119 위성통신 차량이 놓여 있다. 위성통신 차량은 21년간 3,225건의 대형 화재·사고·수해 현장을 누비며 비상 시에 지휘 통신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줬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차량에 위성 안테나 등이 탑재한 점에 착안해 이 차량을 위성 발사 체험시설로 개조하고 이곳에 비치했다. 여기서는 어린이들이 우주항공과 소방 안전을 체험할 수 있다.

2022년 4월에 문을 연 국민안전체험관은 전국 최대 체험시설로 어린이 안전, 화재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과 같은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어린이부터 성인, 장애인과 노약자, 외국인까지 모두가 체험 대상이다. 안전은 인간의 권리가기에 그 누구도 안전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체험의 문턱을 낮췄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을 만난다. 이때 필요한 것은 침착하고 안전하게 최선의 방법을 찾는 일이다. 그러나 처음 맞닥뜨리는 위기일발의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사람은 거의 없다. 국민안전체험관에서는 실제 상황에 맞춘 설정과 환경을 경험하게 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생존법을 알려준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1층에 경기소방역사사료관이 있고, 지하에 복합안전체험관과 어린이 안전동화마을, 4D 영상관, 응급처치전문체험장이 있다. 실제로 메인 체험시설이 있는 지하로 발걸음을 옮겨본다.

info.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사전예약제 운영
매월 25일 09:00부터
홈페이지 내에서 예약가능

운영시간

09:00 ~ 17:00

체험시간

평일 : 09:30 ~ 17:00
주말 : 10:00 ~ 17:00
※ 이용요금 무료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그 외 휴관일(별도공지)

위치

오산시 북삼미로 22
(내삼미동 243-4)

문의

031-288-1004~5

눈높이에 맞춘 교육, 어린이 안전동화마을

노란색과 연두색, 주황색... 한눈에 들어오는 색감으로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어린이 안전동화마을은 5세부터 9세까지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한 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된다. 부모는 함께 참석할 수 없으며, 아이들만 안전동화마을에 입장할 수 있다. 하루에 총 4회로 나뉘어 체험이 진행되므로, 시간대를 확인하고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가정안전, 교통안전, 야외안전, 소방관 직업체험까지 4가지 분야로 나누어 교육을 받는다. 가정안전은 가정 내 안전사고와 지진, 연기대피 등을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해 집 안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대처법을 가르친다. 교통안전은 버스, 자동차, 이륜차에 탑승했을 때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알리고, 보행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놀이터, 태풍, 아동범죄 등 야외 활동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사고도 알린다. 마지막으로 소방관 직업체험은 아이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있는 교육으로 소방차를 타고 화재를 진압해 보는 경험을 할 수 있다. 화재가 난 건물에 실제 물대포를 쏘서 불을 끄는 체험이기 때문에 지루할 틈 없이 교육이 진행된다.

이 밖에도 안전동화마을에서는 어린이 안전 인형극단을 창단해 운영 중인데, 국민안전체험관에서 제작한 1호 인형극은 '횡단보도는 초록불'이다. 국민안전체험관 교수요원들이 직접 연출과 연기를 맡았고, TV프로그램 <동물농장>의 성우 안지환 씨가 재능기부로 더빙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법을 주제로 인형극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이들이 안전체험을 하는데 흥미를 느낄 수 있다. 안전동화마을 밖으로 나가면 국내 토포 캐릭터이자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로보카 폴리가 그려진 수납장이 보인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 구성이 세심하게 느껴진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 복합안전체험장

어른들이 체험할 수 있는 복합안전체험장은 총 4개의 구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일상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하는 생활·산업안전 구역이다. 실제 상황을 재현하며, 승강기 안에 갇혔을 때 대처 요령을 배우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소화기 사용법과 불이 났을 때 연기를 마시지 않고 대피하는 방법을 체험할 수 있다.

두 번째 교통안전 구역에서는 보행, 자전거, 승용차, 버스, 지하철 등 교통사고에 대비할 요령을 배운다. 특히 승용차 전복 체험을 통해서 안전벨트의 중요성에 대해 느낄 수 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전복되었다면, 머리와 목의 부상 위험이 크다. 평소 아무 생각 없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던 터라 올바른 승용차 안전벨트 착용 행동 요령에도 귀를 기울였다. 허리벨트는 골반 위에 오도록 한다. 복부에 착용하게 되면, 사고 발생 시 장기 손상 위험이 따른다. 가슴벨트는 정확하게 가슴을 가로질러 착용해야 한다. 지하철 안전사고 체험도 기억에 남았다. 꿈쩍했던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를 떠올리며 지하철 화재 시 꼭 숙지해야 할 행동 요령을 알려준다. 사람들이 밀집한 지하철에 화재가 발생하면 질서정연하게 탈출하기가 쉽지

않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출입문 쪽의 소화기를 사용해 불을 끄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에게 상황을 공유한다. 지하철 문 옆에는 비상호출 인터폰이 마련되어 있는데 의외로 위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재난안전과 캠핑안전 구역이다. 재난안전 구역에서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재난 사고에 대비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범죄 안전교육이나 지진 대피 체험, 다중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사례 교육과 대처 요령, 대형 재난 발생 시 생존배낭 꾸리기 등을 배울 수 있다. 캠핑안전 구역은 야외 활동 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한 상황별 대처법으로 주로 산행을 하거나, 물놀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를 학습하고 예방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응급처치 전문체험장에서는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심폐소생술을 배우고, 4D 영상관에서는 특수 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감염병,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분야별 대립과 갈등, 현대를 살면서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나를 위해서, 혹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안전문화가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자리할 것이다. 🐦

